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제22권 제3호(2011년 9월)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1;22(3):43-54

유아의 기질 및 성격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수준의 차이

김지영, 이지현, 성원영*, 명성민†, 강형원‡, 김지훤

제인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신경정신과*
중원대학교 의료정보학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교실‡

The Correlation between JTCI3-6 and Mother's SRI and BDI

Ji-Young Kim, Ji-Hyun Lee, Won-Young Sung*,
Sung-Min Myoung†, Hyung-Won Kang‡, Ji-Hwon Kim

Dept. of Neuropsychiatry, Je-In Oriental Medicine Hospital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Dept. of Medical Informatics, Jung-Won University†
Dept. of Neuropsychiatry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at correlation between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3-6) and Mother's Stress Response Inventory(SRI) and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Methods :
We investigated 48 cases of 3-6 year old infants. Mothers of infants answered that questionnaire about temperament, character of infants and stress, depression of themselves.
JTCI3-6 and SRI, BDI were used to get to know that answers.

Results :
Infants of mothers with high stress levels were lower than infants of mothers with low stress levels in cooperativeness.
Infants of mothers with high depression levels were lower than infants of mothers with low depression levels in cooperativeness.
Stress of mothers was negative correlated with cooperativeness in temperament of infants. Depression of mothers was negative correlated with cooperativeness in character of infants.

Conclusions :
Stress and depression of mothers were negative correlated with cooperativeness in character of infants.

Key Words :
JTCI3-6, SRI, BDI

투고 : 2011. 8. 3. 수정 : 2011. 9. 9. 채택 : 2011. 9. 17
교신저자 : 김지훤,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14 제인한방병원 신경정신과
Tel) 02-3408-2123, Fax) 02-3408-2104, E-mail) puddingcome@naver.com

Ⅰ. 서 론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고 여성의 관심이 직업적 성공이나 사회적 출세 기회에 집중되고 있지만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있어서는 양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은 여전히 절대적이지 않을 수 없다[1]. 아동의 발달단계 중 영유아기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감이나 자율성이 획득되는 중요한 시기로 아동과 가장 빈번한 접촉을 시도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시되고 있다[2].

현재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자녀양육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가족 구성원의 지지나 도움 없이 자녀양육과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우울은 어머니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 중 대표적인 정서반응으로 Gove와 Hughes[3]는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기간 지속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우울이나 불안증상을 초래한다고 언급하였다.

소아의 기질 성격과 어머니의 양육에 관한 한의학적 선행연구로 서[4] 등은 소아의 사상체질간의 신체적 차이에 관해 비교하였고, 임[5] 등은 사상체질별 유아들의 행동특성의 차이에 관하여 분석하였으며 한[6]은 사상체질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나 대부분 사상체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오[1]는 유아의 기질 및 성격과 어머니의 만족도와 양육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유아의 성격발달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일방적 책임이 있지 않으며 유아 자신의 타고난 기질 또한 함께 관련됨을 보여주었고 박[7] 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가 반드시 일방적이지 않다고 보고하였지만 유아의 기질 및 성격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유아의 기질 및 성격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수준의 차이에 대해 연구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서울 소재 어린이집 세 곳에 재원 중인 3세부터 6세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어린이집 교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총 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60부의 응답된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나 이중 4개 이상의 문항에 무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시켜 총 48명 유아의 어머니가 최종 연구 대상이 되었다.

2. 평가도구

1) 기질 및 성격검사-유아용(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이하 JTCI3-6)[8]

기질 및 성격검사-유아용(JTCI3-6)은 Goth, Cloninger, schmeck가 공동연구를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독일판 JTCI3-6을 2007년 민병배 등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것이다.

JTCI3-6는 취학전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자 보고식 검사로 기질의 상위차원을 자

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으로 나누고, 성격의 상위차원을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로 나눈다. 이러한 총 7개의 기질, 성격 상위차원 아래 29개의 하위 기질, 성격 차원이 있고 총 8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스트레스반응 척도[9]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고경봉, 박중규, 및 김찬형(2000)이 개발한 스트레스 반응 척도(Stress Response Inventory, 이하 SR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스트레스반응을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요인분석 결과, 스트레스 반응은 7개의 하위요인, 즉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좌절로 나뉘었다. 이 척도는 지난 7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경험한 것들을 묻는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RI 점수가 50점 이상인 군과 50점 미만인 군으로 나누어 유아의 기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고[9] 등의 연구에서 정상군 215명의 SRI 점수는 평균 68.5, 표준편차 23.4로 SRI점수가 50점 이상이라고 하여도 정상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SRI 50점 이상인 어머니들은 50점 이하의 어머니들과 구분되게 벡 우울척도에서 16점 이상으로 중등도의 우울을 나타냈기에 SRI 점수 50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3) Beck 우울척도[10]

벡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는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 (1961)이 우울과 관련된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 동기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 마다 4개의 서술문이 제시되어 있어 이 중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서술문 1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우울 증상의 정도에 따라 0-3으로 채점되며, 총점의 범위는 0-63점이다. 9점이하는 정상, 10~15은 가벼운 우울증, 16~23은 중등도 우울, 24이상은 심한 우울증으로 평가한다.

3. 통계처리

결과는 PASW18.0을 사용하여 중위수(median)와 최대-최소값를 산출한 후 각각의 척도가 스트레스의 정도(SRI 50점 이상/ 50점 미만), 우울의 정도(BDI 10점 이상/10점 미만),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적 방법인 Wilcoxon Rank Sum test를 통해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유아의 기질, 성격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Spearman Correlat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모든 검정에서 유의수준은 95%의 신뢰구간, 즉 p-value가 0.05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Ⅲ. 결 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4.6세 이고 표준편차는 ±4.08 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14명, 대학원졸 6명, 중졸 1명의 순이었다. 직업은 주부가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11명, 사무직 9명, 교사 7명, 연구원 1명의 순이었다.

유아의 연령은 평균 4.4세였으며 남아가 21명으로 43.7%, 여아가 27명으로 56.2%를 차지하였다. 형제 수는 2명인 가정이 68.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3명이 14.6%, 1명이 12.5%를 차지하였다. 형제 수가 4명과 5명인 가정도 각각 한 가정씩 있었다. 형제 서열은 첫째가 17명으로 35.4%, 둘째가 26명으로 54.2%, 셋째가 5명으로 10.4%를 나타내었다(Table Ⅰ).

Table Ⅰ.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Subjects (n=person)

		n	(%)
mother's age(year)	< 24y	1	2.1
	25~34y	19	39.6
	35~44y	28	58.3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1	2.1
	high school graduate	14	29.1
	college graduate	27	56.3
	graduate school	6	12.5
occupation	housewife	20	41.7
	self-employed	11	22.9
	office worker	9	18.8
	teacher	7	14.5
	researcher	1	2.1
infant's age(year)	3y	10	20.8
	4y	17	35.4
	5y	14	29.2
	6y	7	14.6
infant's gender	male	21	43.8
	female	27	56.2
number of children	1	6	12.5
	2	33	68.8
	3	7	14.6
	4	1	2.1
	5	1	2.1
grade of brother	1	17	35.4
	2	26	54.2
	3	5	10.4

2. 어머니의 스트레스반응 척도에 따른 유아의 기질, 성격의 차이

스트레스반응 척도가 50점 이상인 어머니는 5명으로 10.42%를 차지하였고, 스트레스반응척도가 50점 미만인 어머니는 43명으로 89.58%를 차지하였다.

스트레스반응 척도가 높은 어머니를 둔 유아는 낮은 어머니를 둔 유아에 비해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자기초월의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스트레스반응 척도가 낮은 어머니를 둔 유아는 높은 어머니를 둔 유아에 비해 인내력, 자율성, 연대감의 점수가 높았고, 이 중 연대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Ⅱ).

Table Ⅱ. JTCI3-6 Scores accoding to SRI Scores

	SRI Scores<50(n=43)		SRI Scores≧50(n=5)		p-value
	median	max-min	median	max-min	
NS	50	42	60	24	0.14
HA	48	34	51	18	0.50
RD	50	39	54	17	0.66
P	50	48	45	30	0.39
SD	52	41	48	22	0.26
C	51	38	43	17	0.01
ST	46	43	48	17	0.45

JTCI3-6: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SRI: Stress Response Inventory
NS: Novelty Seeking, HA: Harm Avoidance, RD: Reward Dependence
P: Persistence, SD: Self-Directedness, C: Cooperativeness
ST: Self-Transcendence
max: maximum, min: minimum

3. 어머니의 우울 수준에 따른 유아의 기질, 성격의 차이

BDI의 최대값은 27점이었고 10점 이상인 어머니는 9명으로 18.6%를 차지하였으며, BDI가 10점 미만인 어머니는 39명으로 81.4%를 차지하였다.

BDI가 높은 어머니를 둔 유아는 낮은 어머니를 둔 유아에 비해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자기초월의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BDI가 낮은 어머니를 둔 유아는 높은 어머니를 둔 유아에 비해 인내력, 자율성,

연대감의 점수가 높았고, 이 중 연대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Ⅲ).

Table Ⅲ. JTCI3-6 Scores accoding to BDI Scores

	BDI Scores<10(n=39)		BDI Scores≧10(n=9)		p-value
	Median	max-min	Median	max-min	
NS	50	42	55	28	0.23
HA	48	33	52	27	0.44
RD	51	39	53	24	0.85
P	50	48	45	30	0.65
SD	52	41	48	22	0.07
C	53	38	44	25	0.001
ST	46	43	48	20	0.48

4. 남녀 유아의 기질, 성격 척도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의 차이

남아는 자극추구, 인내력, 자율성 척도에서 여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여아는 위험회피, 자기초월에서 남아에 비해 중위수가 높았다. 그러나 각 척도에서 남녀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남아의 어머니는 여아의 어머니에 비해 SRI와 BDI의 중위수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able Ⅳ).

Table Ⅳ. JTCI3-6, SRI and BDI Scores according to Sex

	Male(n=21)		Female(n=27)		p-value
	median	max-min	Median	max-min	
NS	51	36	50	42	0.69
HA	48	34	51	30	0.82
RD	51	33	51	39	0.85
P	50	32	48	48	0.37
SD	50	38	48	38	0.38
C	51	28	51	38	0.96
ST	46	35	48	42	0.44
SRI	12	71	11	61	0.50
BDI	5	27	4	19	0.15

5. 기질, 성격 척도와 스트레스, 우울의 상관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유아의 기질, 성격 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기질, 성격 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Ⅴ).

Table Ⅴ. Correlations between JTCI3-6 and SRI, and between JTCI3-6 and BDI

	SRI p-value (r)	BDI p-value (r)
NS	0.55(0.08)	0.41(0.11)
HA	0.38(0.12)	0.94(0.01)
RD	0.06(0.26)	0.46(0.10)
P	0.23(0.17)	0.42(0.11)
SD	0.77(-0.04)	0.87(-0.02)
C	0.05(-0.27)	0.20(-0.18)
ST	0.28(0.15)	0.57(0.08)

r: correlation coefficient

6. 기질, 성격의 하위척도와 스트레스, 우울의 관계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유아의 기질 하위척도 중 RD3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5$, $r=0.31$). 또 성격의 하위척도 중 C2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0.05$, $r=-0.33$) (Table Ⅵ).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기질, 성격 하위척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Ⅶ).

Table Ⅵ. Correlations between Subscale of Temperament and SRI, and between Subscale of Temperament and BDI

	SRI p-value (r)	BDI p-value (r)
NS1	0.45(0.11)	0.34(0.13)
NS2	0.30(0.15)	0.19(0.19)
NS3	0.75(0.04)	0.43(0.11)
NS4	0.50(0.09)	0.75(0.04)
HA1	0.33(0.14)	0.86(0.02)
HA2	0.76(0.04)	0.91(-0.01)
HA3	0.38(0.12)	0.69(0.05)
HA4	0.37(0.13)	0.84(-0.02)
RD1	0.51(0.09)	0.70(-0.05)
RD2	0.26(0.16)	0.73(0.04)
RD3	0.03(0.31)	0.17(0.20)
P1	0.20(0.18)	0.18(0.19)
P2	0.48(0.10)	0.97(0.004)

NS1: Exploratory Excitability vs Stoic Rigidity
NS2: Impulsiveness vs Reflection
NS3: Extravagance vs Reserve
NS4: Disorderliness vs Regimentation
HA1: Anticipatory Worry & Pessimism vs Uninhibited Optimism
HA2: Fear of Uncertainty
HA3: Shyness with Stranger
HA4: Fatigability vs Vigor
RD1: Sentimentality
RD2: Attachment vs Detachment
RD3: Dependence vs Independence
P1: Eagerness of effort
P2: Ambition & Perfectionism

Table Ⅶ. Correlations between Subscale of Character and SRI, and between Subscale of Character and BDI

	SRI p-value (r)	BDI p-value (r)
SD1	0.22(-0.17)	0.28(-0.15)
SD2	0.40(0.12)	0.40(0.12)
C1	0.26(-0.16)	0.46(-0.10)
C2	0.02(-0.33)	0.09(-0.24)
ST1	0.23(0.17)	0.45(0.11)
ST2	0.38(0.12)	0.65(0.06)

SD1: Purposefulness vs Lack of Goal Direction
SD2: Self-Acceptance vs Self-Striving
C1: Social Acceptance vs Social Intolerance
C2: Empathy vs Social Disinterest
ST1: Fantasy
ST2: Spirituality

Ⅳ. 고 찰

급격한 핵가족화, 증가하는 맞벌이 가정, 점차 늦어지고 있는 결혼·출산 연령 등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지나친 영유아 조기교육 열풍 속에서 한국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11]. 가족중심주의적일 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 즉 일심동체로 여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자녀관[12], 그리고 자녀양육 관련 사회적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실정을 고려해볼 때, 한국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할지 부분적으로나마 추측해 볼 수 있다.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보호와 관심을 여전히 필요로 하지만, 유아기 발달 특성상 자아개념이 생기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한다[11].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장해 가지만, 출생 직후 맺는 일차적 관계인 가족들과의 상호관계, 그중에서도 어머니와 맺는 관계는 이후 자녀의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발달연령상 어머니에게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영유아기에는 어머니가 이들의 이후 전반적인 발달과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7]. 따라서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양육과정에서 남성보다 구속감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13].

현재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자녀양육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가족구성원의 지지나 도움 없이 자녀양육과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Mercer[14]는 어머니가 자녀 양육 시 경험하는 가장 빈번한 스트레스로 어머니의 개인시간 부족, 어머니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족, 아기간호와 수면부족, 책임감 등을 제시하였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가사노동의 증가는 반복적인 일상생활에 대해 회의를 느끼거나 정체감 상실의 위기를 초래한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 어머니가 과도한 양육스트레스를 받으면 부모로서의 능력에 회의를 느끼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게 된다.

우울은 어머니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중 대표적인 정서반응으로 Gove와 Hughes[3]는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기간 지속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우울이나 불안증상을 초래한다고 언급하였다.

양육에서 느끼는 어머니의 낙심과 절망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성발달의 문제가 전적으로 양육자의 책임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양육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어머니에게 있지 않다면 이런 사실의 인식은 어머니들을 과도한 책임감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며 자녀의 발달에 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와 자원을 갖게 할 것이다[1].

Hedwig, Bakel, 및 Riksen-Walraven[15]은 최근 부모의 양육행동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크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유아와 부모와의 관계는 유아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특성과 유아의 특성 간 상호작용이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16].

또한 오[1] 는 유아의 기질 및 성격, 어머니의 만족도와 양육행동의 관계를 밝히면서 유아의 성격발달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일방적 책임이 있지 않으며 유아 자신의 타고난 기질 또한 함께 관련됨을 보여준다.

한의학에서의 육아법은 크게 外感 예방 중심, 內傷 예방 중심, 精神 중심으로 삼분할 수 있으며, 정신면에서 본 육아법은 環境乳食이 神氣微弱한 소아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논하고 있으며, 유모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17]. 또한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 廣濟說에서 幼年七八歲前 聞見未及 而喜怒哀樂膠着 則成病也 慈母宜保護之也 라고 하여 7,8세전 모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18].

서[4] 등은 소아의 사상체질간의 신체적 차이에 관해 비교하였고, 임[5] 등은 사상체질별 유아들의 행동특성의 차이에 관하여 분석하였으며, 한[6]은 사상체질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나 소아의 기질과 성격,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다루는데 있어서 사상체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아의 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RITQ(Revised Infant Temperament Scale, Carey & McDevitt 1977)나 IBQ(The Infant Behavior Questionaire, Rothbart, 1981)를 사용한 연구가 많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성격을 알아

보기 위해 기질 및 성격검사-유아용(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이하 JTCI3-6)을 사용하였고, 유아의 기질, 성격과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우울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JTCI3-6[8]은 미국 워싱턴대학교 교수인 C.R.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에 기초하여 개발된 검사로서 취학전 유아와 아동의 기질 및 성격을 측정하기 위한 양육자 보고식 검사이다.

기질은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 성향으로 다분히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보인다. 반면 성격은 개인이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가, 개인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가를 포함하는 자기개념(self-concept)에서의 개인차와 관련된다.

JTCI 3-6은 4개의 기질척도와 3개의 성격척도를 포함하는 7개의 척도로 이루어진 검사이다. 자극추구(NS:Novelty Seeking), 위험회피(HA:Harm Avoidance), 사회적 민감성(RD:Reward Dependence), 인내력(Persistence)의 4개 척도는 기질척도에 해당하고, 자율성(SD:Self-Directedness), 연대감(C:Cooperativeness), 자기초월(ST:Self-Transcendence)의 3개 척도는 성격척도에 해당한다. 7개의 기질 및 성격척도들은 각각 그 내에 하위척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JTCI3-6은 19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자극추구는 흥분과 보상을 추구하는 탐색 활동을 하고 처벌과 단조로움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성향을 측정 하며, 탐색적 흥분/관습적 안정성, 충동성/심사숙고, 무절제/절제, 자유분방/질서정연을 평가하는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위험회피는 처벌이나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행동이 억제되며 이전에 하던 행동을 중단하는 성향을 측정하고 예기불안/낙천성,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쉽게 지침/활기넘침을 평가하는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사회적민감성은 사회적 애착에 대한 의존성에서의 개인차, 사회적 보상 신호와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정서적감수성, 친밀감/거리 두기, 의존/독립을 평가하는 3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인내력은 지속적인 강화가 없더라도 한 번 보상된 행동을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지속하려는 유전적인 경향을 측정하고 근면과 완벽주의 및 성취에 대한 야망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성격의 세척도는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서의 차이, 즉 자기내념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한다. 자율성은 자신을 '자율적 개인'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목적의식, 자기수용/자기불만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연대감은 자신을 '인류 혹은 사회의 통합적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타인수용, 공감/둔감의 2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자기초월은 자신을 '우주의 통합적 한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환상, 영성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8].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고경봉, 박중규, 및 김찬형이 개발한 스트레스반응척도(Stress Respons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9]. 이 척도는 스트레스반응을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스트레스 반응은 7개의 하위요인, 즉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좌절로 나뉘었다. 이 척도는 지난 7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경험한 것들을 묻는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아주 그렇다(4점)', '거의 그렇다(3점)', '그렇다(2점)', '거의 그렇지 않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0점)'의 5점 평정

척도로 구성되었고 최저 0점에서 최고 15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높음을 의미한다[9].

어머니들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벡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이하 BDI) 한글판은 Beck에 의해 1967년 개발된 것을 1991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 등 21개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점수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로 한흥무 등은 0-9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는 가벼운 우울 상태, 16-23은 중한 우울 상태, 24-63은 심한 우울상태로 본다[10].

어머니의 SRI 검사 후 점수가 50점 이상인 어머니와 50점 미만인 어머니로 구분하여 유아의 기질, 성격 척도의 중위수를 비교해 보았다.

높은 스트레스반응을 보인 어머니를 둔 유아는 기질 척도 중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의 점수가 높았고 특히 자극추구는 10점이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자극추구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유아는 성미가 급하고 쉽게 흥분하며 탐색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충동적이고 열정적이면서도 쉽게 지루해하고 자유분방하다. 종종 즉흥적인 인상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감정 변화가 많으며, 감정 절제도 어려운 편이다[8]. 이러한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유아의 성격과 부모 만족도의 상관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유아의 자극추구 성향에 대해서 부모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19].

높은 스트레스반응을 보인 어머니를 둔 유아는 성격 척도 중 연대감 점수가 낮았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자기초월의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연대감 척도는 자신을 '인류 혹은 사회의 통합적 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즉 타인에 대한 수용 능력 및 타인과의 동일시 능력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한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공감적이고 관대하며 동정심이 많고 지지적인 사람이다. 반면 이 척도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은 자신에 몰두해 있고 타인에게 관대하지 않으며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이며 기회적이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나 감정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경향이 있다[8]. 연대감이 낮은 유아의 경우 자신에게 몰두해 있고 비협조적이며,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어머니는 자녀와 일상을 공유하면서 심리적으로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의 BDI 검사 후 점수가 10점 이상인 어머니와 10점 미만인 어머니로 구분하여 유아의 기질, 성격 척도와의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BDI 점수가 10점 이상으로 가벼운 우울상태를 나타내는 어머니는 9명으로 18.6%를 차지하였다.

BDI의 점수가 높은 어머니를 둔 유아는 기질 척도 중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민감성의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집단과 비우울집단의 기질 척도들의 평균차이를 검증했을 때 위험회피, 자극추구에서 우울증집단이 비우울증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위의 두 척도는 우울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20].

BDI의 점수가 높은 어머니를 둔 유아는 성격 척도 중 연대감 점수가 낮았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자기초월의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연대감이 낮은 유아는 타인의 권리나 감정에 대한 배려가 적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우울을 조장 할 수 있으며, 우울한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아동에게 몰입되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 몰입해 있어 유아의 요구에 따뜻하고 민감하게 대하는 부모의 능력이 저해되어 유아의 연대감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2]. 연대감은 개인이 자신을 사회의 일부로 지각하는 정도를 말하여 유아에게서 타인 수용과 공감능력을 측정하므로 사회성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연대감이 낮은 유아의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아질 수 있다.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에서, 기질은 다분히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으로서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속성을 보인다. 기질은 인성 발달의 원재료이며 기본 틀이 된다. 반면 성격은 기질이라는 원재료를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사회문화적 학습의 영향을 받으며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한다[8]. 유아의 성격발달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유아의 연대감 발달에는 유아 자신의 기질이 어머니의 만족도나 양육행동보다 더 크게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유아의 성격발달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일방적 책임이 있지 않으며 어머니 또한 유아의 타고난 기질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머니가 양육에의 일방적인 죄책감보다는 유아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유아의 어머니를 상담하거나 교육할 때에는 어머니가 양육하기 까다로운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우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우울 또한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성격 특성과 우울증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우울증 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연대감 척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즉, 낮은 연대감의 특성들은 또래나 동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고립되기 쉬우며 이는 우울증으로 발전한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20]. 연대감이 낮은 유아의 어머니는 스트레스와 우울 등 부정적 정서가 높아진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외향성이 낮고 우울, 불안이나 신경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경우, 유아는 위축문제를 보일 수 있다. 유아의 우울, 불안에 대해서 어머니 특성이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21]. 연대감이 낮은 유아의 어머니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지고, 이는 자녀의 연대감을 더욱 낮추어 우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우울과 자녀의 우울 사이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자기초월 척도가 높은 유아를 둔 어머니에게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은 것은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자기초월 척도가 높은 사람은 꾸밈이 없고 충만하며 참을성이 있고 창조적이며 사심이 없고 영적인 사람으로 기술 된다[8]. 그러나 자기초월 척도는 자율성과 연대감과는 달리 그 자체만으로는 척도가 나타내는 의미를 진단할 수 없고 자율성 및 연대감과 어떻게 조화되느냐에 따라 발달 상의 성숙 또는 비성숙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척도에 대해서는 연구의 필요성이 보인다[1].

남녀 유아의 기질, 성격척도의 중위수를 비교해 본 결과 남아는 자극추구, 인내력, 자율성 척도에서 여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여아는 위험회피, 자기초월에서 남아에 비해 중위수가 높았다. 그러나 각 척도에서 남녀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남아의 어머니는 여아의 어머니에 비해 SRI와 BDI의 중위수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성차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7].

유아의 기질, 성격의 각 척도는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유아의 기질, 성격의 하위척도 중 의존/독립 평가하는 RD3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공감/둔감을 평가하는 C2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D3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승인을 얻는 것에 의존적인 사람이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심지어는 남들로부터 보호와 지배를 자극하고 이끌어내려는 경향을 보인다.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혼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저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지지와 보호를 바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희생하거나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자원하여 하기도 한다. 따라서 비판을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집착한다.[8] 의존적이고 어머니에게 집착하며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려는 유아를 둔 어머니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C2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고려한다. 반면 낮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고 관심과 배려가 적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못하거나, 타인의 목표와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8]. 따라서 C2 척도가 낮은 유아의 어머니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기질, 성격의 하위척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고(n=48), 서울시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연구대상이 주로 중류층이었던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기질 성격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수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향후 한의학적 육아법, 체질적 특성, 어머니의 기질 성격에 대해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사회경제적 계층을 포함하고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유아와 어머니의 기질, 성격의 상호작용에 대해 고찰해야 할 것이며,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을 한의학적으로 변증하여 치료로 연결시키기는 연구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서울 소재 어린이집 세 곳에 재원 중인 3세부터 6세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 48명을 대상으로 JTCI3-6, SRI, BDI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SRI의 점수가 높은 어머니를 둔 유아는 점수가 낮은 어머니를 둔 유아에 비해 연대감 척도의 점수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 BDI의 점수가 높은 어머니를 둔 유아는 점수가 낮은 어머니를 둔 유아에 비해 연대감 척도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3.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유아의 기질 하위척도 중 RD3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성격 하위척도 중 C2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참고문헌

1. 오현숙. 유아의 기질 및 성격, 어머니의 만족도와 양육행동의 관계 : 유아의 자율성과 연대감발달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2006; 11(2):211-26.
2. 김미예, 박동영.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및 언어적 학대. 아동간호학회지. 2009;15(4):375-82
3. Gove WR, Hughes H. Possible causes of apparent sex differences in physical heal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Social Review. 1979;126-46.
4. 서정민, 이유진, 윤혜진, 강미선, 백정한. 소아의 사상체질별 신체 특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zema21을 통한 체질분석 및 체성분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9;23(1):173-93.
5. 임재택, 김미경. 사상체질별 유아들의 행동특성에 관한 질적 분석. 유아교육논집. 2001;10:1-25.
6. 한미라. 사상체질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04;3(1):71-102.
7.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2009;14(4):549-66.
8.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기질 및 성격검사 매뉴얼. 서울:(주)마음사랑. 2007:6,15-33.
9. 고경봉, 박중규, 김찬형. 스트레스반응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000;39(4):707-19.
10. 고려대학교부설 행동과학연구소. 심리척도 핸드북1. 서울:학지사. 2004:419-24.
11. 박진아.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모·자의 심리적응 및 모-자녀관계 관련 연구. 놀이치료연구. 2011;15(1):43-56.
12. 최인재.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007;26(3):611-28.
13. 한세영, 박성연.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996;17(1):245-58.
14. Mercer RT.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first year. Nursing Research. 1985;34:198-203.
15. Hedwig JA, Bakel V, Riksen-Walraven JM. Parenting and development of one-year-olds: Links with parental, contextual, and child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2002;73(1):256-73.
16. 김민아, 이재신. 어머니 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004;24(5):145-66.
17. 吳漢均, 金德坤. 育兒法의 文獻的 考察.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1994;8(1):81-9
18. 고병희, 김경요, 김달래, 김종원, 김진성, 박성식, 송일병, 송정모, 이의주, 장현진, 전진상, 조황성, 최용준, 한주석, 홍석철, 황성록. 사상의학. 서울:집문당. 2001:493.
19. 모인선, 김희연. 유아의 성격, 부모 만족도와 양육태도의 관계. 아동교육. 2005;14(1):131-44.
20. 안정숙, 채규만. 스트레스, 성격특성과 우울증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자기주도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2007;12(4):813-32.
21. 김 연, 황혜정. 유아 기질 및 심리적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008;28(3):23-49.